

#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 낸 다섯 가지 힘, 역사를 움직이다

〈육망·모더니즘·제국주의·몬스터·종교〉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사이토 다카시 지음

오늘의 세계를 있게 한 힘은 무엇일까? 아니 세계를 떠받드는 가장 강력한 기제는 무엇일까?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난다. 며칠 전에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총격 테러를 당했다. 세계 제일의 안보와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였다. 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고, 테러범은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 했을까?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들이 있다. 그 힘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5개의 키워드로 세계사를 재구성한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은 흥미로운 책이다. 일본 메이지대학교 문학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다카시가 저자다. '분야의 틀에 갇히지 않은 열린 시각과 날카로운 분석' 위주로 기술된 책은 전체적인 세계사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 세계는 어느 국가나 사회, 개인이 따로 존립하기 어렵다. 복잡하게 조직화돼 있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사회, 집단, 국가로 한정해서는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세계'라는 거시적 단위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자는 세계사를 사유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육망',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를 꼽는다. 학자들마다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할 것인데 사이토 다카시 또한 이색적인 키워드로 세계사를 횡단한다.

5개 키워드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정'이다. 인간의 심오하면서도 복잡다단한 감정은 오늘의 세계사를 만든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다.

저자는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가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는, 자본주의라는 '늑신 기관차'는 왜 멈추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 등을 할 수 있다면 저자의 의도에 부합한 독서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장 '육망의 세계사'는 물질과 동경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 들여다본다. 그 가운데 커피와 향차, 금과 철, 브랜드와 도시는 물질에 대한 욕망, 나아가 육망이 사람을 다스리는 양상 등에 초점을 맞춘다.

2장 '서양 근대화의 힘'에서는 모더니즘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를 고찰한다. 특히 근대문명의 딜레마를 만들어낸 '가속력'에 주목한다. 세계는 근대화가 촉발했던 가속력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부터 1969년 아폴로 11호 달착륙에 이르기까지 '좀 더'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생겨난 압박이다.

군주들이 왜 영토확장에 목을 매다시피 했는지 등을 추적한 내용도 있다. 제 3장 '제국의 야망'은 야망이 견인한 '제국'이라는 괴물을 분석한다.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제국, 이슬람제국, 진나라 등 중세와 근대를 떠받든 힘은 '제국주의'였다. 저자는 지배와 정복의 욕망은 남자의 천성이며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안에 어떻게 제국주의 메커니즘이 반영돼 있는지 추적한다.

4장과 5장은 각각 '세계사에 나타난 몬스터들', '세계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다'를 주제로 세계사를 통찰한다. 전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을 다루며 현대사회는 파시즘을 무너뜨렸는지 반문한다.



육망,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 등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개의 힘에는 인간의 감정이 결부돼 있다. 사진은 로마제국의 상징 콜로세움.

저자는 사회주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후자에서는 '일신교 3형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거의 모든 인류 전쟁사 주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등을 짚어본다.

〈뜨인돌·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위대한 동양 고전 30권을 1권으로 읽는 책

김연수 지음

'논어', '맹자', '도덕경', '법구경', '대학', '순자', '묵자', '한비자', '주역' 등... 위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동양사상의 뿌리가 된 동양고전들이다. 위에 언급한 책들 외에도 '손자병법', '채근담', '명심보감', '금강경', '소학' 등도 모두 동양고전이다. 학창시절에 들었거나 배웠던 고전들이지만 막상 읽거나 그 내용을 깊이있게 공부한 적은 별로 없다.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날 수 있는 동양 고전을 아우른 책이 나왔다. 3000년 동양 사상의 정수를 한 권의 책으로 갈무리한 '위대한 동양 고전 30권을 1권으로 읽는 책'은 동양철학자들이 건네는 인생 지침서다. 중고등학교에서 한자와 고전 속 문장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연수가 저자다. 그는 고전이 지닌 힘과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수년간 '인문 고전 읽기 수업'을 펼쳐왔다.

책은 어려운 원문 대신 쉽게 풀어 쓴 덕분에 복잡한 개념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는 한번쯤 동양 철학자들이 건네는 인생의 가르침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마음공부는 물론 인간관계, 처세 등을 고민할 때 한번 정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사상가들의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이들의 삶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사기'를 완성했던 사마천을 비롯해 뛰어난 통찰력으로 진시황의 통일에 보탬이 됐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았던 한비자의 삶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편 책에서는 한국의 대표 고전들인 '성학집요', '성학집요', '성호사설', '북한역', '목민심서' 등도 만날 수 있다.

〈빅피시·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교양으로 읽는 서양음악사

아마사키 게이이치 지음, 이정미 옮김

"역사적 배경을 알면 클래식 음악이 몇 배로 즐거워진다!" 클래식의 역사와 배경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현 고등학교 역사 교사이자 유튜브로 활동중인 아마사키 게이이치가 쓴 '교양으로 읽는 서양음악사'다.

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역사와 음악의 역사를 함께 전달하며 좀 더 깊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역사와 음악에는 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작곡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 시대 소재로 한 곡'이라는 것이다.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바흐는 사실 바로크 음악 말기에 활동하면서 바로크 시대 음악을 집대성했다. 가난한데다 자식들도 많았던 그는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전전하며 궁정 음악가와 교회 음악가로 활동했으며 특히 종교 음악에서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에서는 그리스 비극을 다루는 음악극이 자주 상연됐다. 여기에 16세기 이후 반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종교적인 소재를 다루는 음악극도 자주 상연됐다. 이후 두 음악극의 요소가 섞이면서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저자는 역사 이야기와 그 시대의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곡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살았던 작곡가와 대표곡을 해설한다. 곡을 설명할 때는 곡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QR 코드 형태로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시그마북스·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6411의 목소리 지음·노희찬재단 기획

리얼리즘 소설의 정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어떤 민중예술가나 참여 작가의 펜보다 실감 나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각계각층 직업인들의 '체험적 언어'일 것이다.

웹툰 작가부터 도축검사원, 대리운전기사, 농부, 헤어디자이너 등이 자신들의 도구를 놓고 펜을 들었다. 총 일흔다섯 명의 노동자들(6411의 목소리)이 생업 현장에서 마주한 비극, 감동적인 이야기 등 에피소드를 기록한 '나는 얼마짜리입니까?'가 출간됐다.

책은 화력발전소노동자, 호텔 해고노동자, 4부리그 축구선수들 비롯해 면세점 직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봉제노동자, 성소수자 활동가 등 사회에서 저마다 역할을 맡고 있는 직능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당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저자들은 '죽지 않고 맞서는 방법'을 찾아낸 콜센터 상담사, '1년 넘게 일해본 적 없다'는 사회복지사, '퇴직공제금을 잃어 버린 마루노동자' 등을 조명한다. 이들이 흘린 땀방울과 권리를 향한 투쟁기를 실감 나게 다루며 억울한 사연들을 세상에 공유했다.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제 순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사는 저 같은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되는 것이 아닐까요?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노동자와 국가가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책 속 목소리는 시의적으로 다가온다. 저자는 과도한 투쟁이나 저항만을 통해 기업과 반목하는 노동 현장이 아니라, 상호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낳는다는 생각을 들려준다.

〈창비·2만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